

*2013년 아산상을 수상한 광병은 전 밝음의원 원장을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평생의 봉사,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부인 삶



30여년 간 노숙인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해 온 광병은 원장.

“원장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광병은 원장이 밝음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2021년 12월의 마지막 날, 감사 인사와 함께 친구가 건넨 은퇴 선물이 이상하게 묵직했다. 아침 일찍 전통 휠체어를 타고 목발의 도움도 받으며 찾아온 오랜 친구의 선물이었다. 광병은 원장이 선물을 열자 금 열 돈이 나왔다. 그도 처음 받아보는 큰 선물이었지만, 오랜 시간 노숙인으로 살아온 친구에게는 너무 큰돈이었다. 40g 남짓한 금 열 돈의 무게가 광병은 원장에게는 산같이 무겁게 느껴졌다.

“의사와 환자, 봉사자와 노숙인으로 오래 알고 지냈지요. 세상 위 형님이지만 지금은 그냥 친구예요. 이분이 몇 년 전 칠순을 맞았는데, 노숙 생활을 하던 분들에게는 참 드문 일입니다. 축하해야 할 일인데 가족이 없으니 제가 해드려야겠다 마음먹었지요. 지인 십여 명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칠순 잔치를 열어

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죠. 그랬더니 제 칠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며 은퇴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다면श्य요.” 30여 년을 한결 같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온 그의 진실한 마음이 통했기 때문일까. 광병은 원장은 지금도 종종 연락이 닿는 노숙인들과 만나서 짜장면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눈다. 이미 돕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관계는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지금은 한 동네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다정한 친구들이 됐다.

소외된 이들에게 향한 나눔의 마음

“봉사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노숙인,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보면서 저절로 나는 가진게 많은 사람이

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니 욕심을 낼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천사 같은 지적장애인들을 통해 내가 더 나쁜 마음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렇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배운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니 제 인생이 행복해지고 날마다 선물이 됐어요.”


곽병은 원장에게 나눔은 삶 자체였다. 의사였던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운 달동네 주민들을 돕는 것을 보고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의료봉사와 야학교사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국군원주병원 군의관 복무를 계기로 원주와 인연을 맺게 된 그는 1989년 아내와 함께 부부의원을 개원하면서 원주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한센인, 교도소 재소자 등 가장 소외되고 배고픈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1991년 사재를 털어 갈 곳 없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갈거리 사랑촌’을 설립했다. 이후 규모가 커지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전부 기증했다. 1997년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십시일반’을 열고, 노숙인 쉼터인 원주노숙인센터도 운영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복지형 협동조합인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노숙인과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무담보 대출과 재무 교육·상담을 실시했다. 2013년 부부의원의 문을 닫은 그는 강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이어나갔다. 곽병은 원장

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아산상을 수상했다.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봉사의 마음

현재 곽병은 원장은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밝음의원 원장 등 공적인 자리에서 은퇴하고 ‘시골 촌부’의 삶을 누리고 있다. 아내와 함께 칠순기념 전시회를 열고,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본 에세이집 ‘날마다 선물’도 썼다. 하지만 진료와 봉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매주 요양원 어르신들을 찾아가 치료를 하고, 노숙자 진료도 이어가고 있다. 또 2022년에는 자신의 건물을 매각한 전액을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에 노숙인 자립 지원금으로 기부했다. 이렇게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봉사를 이어가는 한결같은 헌신으로 2023년에는 만해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빈곤층 의료봉사단체 ‘빈의자 의사회’에 전액 기부했다.

“대학시절부터 봉사하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의사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는 것이 기뻐서 계속 기부하고 있습니다. 갈거리 사랑촌과 협동조합 등 제가 시작한 일들도 제 세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아 계속된다는 것이 참 고맙고 무척 행복합니다.” 곽병은 원장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한 평생의 봉사,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퍼져 나가고 있었다. 

글 편집부



2011년 갈거리사랑촌 입소자들과 함께한 곽병은 원장.